

승적 상실자가 천도재를?

익산지역 불자들 사자암 천도재에 불만 토로

조계종에서 물의를 빚어 승적을 상실한 출가자가 조계종 사찰인 익산 사자암에서 천도재를 주관해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천도재 모집 과정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지역 불자들의 피해 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前 조계종 승려, 재단불교 생활불교 총재 정다운 스님은 2월 19일 익산 사자암(주지 향봉)에서 '축생천도재 및 구제역병 연구소멸기원 법회' 법문과 천도식을 주관했다.

전북일보에 따르면 이날 천도재에는 조배숙·이춘석 의원, 유기상 익산부시장, 박종대 시의회 의장, 김연배·배승철 도의원, 김대중·김대오·김정수 시의원, 축림 박관구 대표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회는 정다운 스님이 법어와 함께 20여 분간 천도염불을 지내는 등 2시간 동안

법회를 집전했다고 보도했다. 정다운 스님은 총재로 있는 '재단법인 생활불교' 홈페이지에 2008년 회원을 모집해 익산 사자암에서 천도재를 지낸 기록을 버젓이 올려 놓고 있다. 천도재는 1회당 동참금 20만원 1년간 21회를 봉행해 왔다. '재단법인 생활불교' 홈페이지 2008년 게시물 중에는 꿈자리가 뒤송송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이거나 반드시 성사돼야 할 일이 있는 사람 등 총 12개 항목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 자신이 진행하는 천도재를 지내야 한다고 올려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불자는 "최근에도 정다운 스님이 신도들과 함께 수시로 사자암에 와서 천도재를 지냈다"며 "2007년경에도 대규모 법회를 열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포교사단 관계

자는 "일반 무속인들과 다른없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조계종은 물론 불교계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었다"며 "교세가 열악한 전북지역에서 불교전통의식인 천도재가 한 출가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역 스님들인데도 정작 말을 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다운 스님의 측근인 생활불교 관계자는 "향봉 스님이 사자암에 신도도 없으니, 사자암에 와서 천도재를 지내달라고 요청해서 간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자암 주지 향봉 스님은 "조계종 승적이 말소된 사람이 조계종 사찰에서 법회를 집전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조동제 전북지사장

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스님은 "정다운 스님을 모시게 된 것은 염불을 내가 못할 뿐 더러, 구제역 천도를 지내 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봉 스님은 평소 천도재 봉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사자암에서 꾸준히 봉행된 데 대해서 대답을 회피했다. 스님은 "이번 구제역 천도재는 청정지역이던 전북에 구제역이 발생하자 익산시와 시의회, 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미륵산에서 산신제 등을 지내고, 미륵산에 있는 사자암에서도 천도재를 지내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지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홍보부는 "조계종 승적이 말소된 사람이 조계종 사찰에서 법회를 집전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조동제 전북지사장

“교육사업과 인재 양성 집중”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재임... 안정과 발전 기틀 마련

“그동안 추진한 일을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알고 4년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사진)이 재임함에 따라 선운사가 펼쳐는 승려노후수행관, 승가대학원 운영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만 스님은 3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에 방문해 지승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행관'과 선운사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수행과 포교, 복지와 문화 공동체를 지향하는 선운사는 그동안 활발한 지역복지 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선운사는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센터 등 지역 내 5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평균 500~600명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선운사 및 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의료 봉사도 펼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운사는 또 지역주민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특화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고창 주민에게는 선운사 무료 입장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중요한 소임으로 여기고 있다.

특히 '승려 노후 수행관' 건립은 평생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해도 노후 근심이 없는 수행 환경을 위한 선운사의 주력 사업이다. 현재 노스님을 위한 한옥 2동이 신축 공사 중이며 6월이되면 입주 가능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법인을 설립해 '승려 노후 수

신도회 강화와 지역별 모임과 직장 모임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대 생활에 맞는 일요법회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차 모임반 등을 운영한다.

“고창읍에 불교회관을 건립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군포교, 군산교도소 법회, 지역 불교모임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불교환경연대와 생명나눔실천운동본부 지원을 통해 생명·환경운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8년부터 매년 열고 있는 '선운 문화제'에서는 산사음악회, 학술세미나, 박물관 전시회, 보은역 이운 등이 개최된다. 올해는 특히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성격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만 스님은 또 선운사 주지로서 재정관리 원칙을 분명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과 투명 행정을 통해 사찰 재정의 투명화와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입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문화재구역 임차료, 신도 기부금, 임대사업 외 사찰의 특성을 고려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합리적 총무행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과 말사의 불사 및 각종 행정 지원, 총무원-본사-말사로 이어지는 상호 연계시스템도 마련한다.

“교육사업과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지로서 이 부분에 집중할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안정된 총무행정과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기범 기자

‘무등에서 길을 찾다’

무등산 증심사, 출제가 33인 릴레이 초청 법회 개최



광주 증심사(주지 지장)는 취백루에서 3월 19일부터 월 1회씩 33명의 불교계 스님과 재가 학자들로 부터 불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불자로서의 삶, 사회적 현안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한다. 초청법사는 '무등에서 길을 찾

다. 33선지식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3월 19일 쌍계사 감사 월호 스님, 4월 17일 前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 5월 17일 방승인 이상벽 씨, 6월 16일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7월 15일 방곡사 조실 묘허 스님, 8월 7일 조계

종 화정위원장 도법 스님, 9월 18일 우회종 서울대 교수, 10월 11일 법사 인사회 주지 설우 스님, 11월 10일 이미령 동국대교원원 역경위원, 12월 9일 흥법사 주지 심산 스님 등 법사를 연다. (062)226-0108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제2의 인생 꽃피우다

노인일자리사업 발대

고창군노인복지회관(관장 도원)이 어르신들의 제2의 인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끈다. 복지관은 3월 10일 건전한 노인문화형성을 위한 2011년 노인연계프로그램 복운아카데미를 개강했다. 복운아카데미는 수지침 강사, 실버기자단, 실버체육 등 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한 전문교육으로 고창지역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3-12월 3회기에 걸쳐 주1회, 2시간씩 진행된다.

11월에는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시민의 관심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형 △교육기관 및 관련시설에서 활동을 하는 교육형 △지역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도서관 관리를 위한 공익형 △농어촌 일손 도우미를 파견하는 인력파견형으로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선운사 제16대 활동 계획

수행·교육	포교	복지	문화	불사	총무행정
승가대학원 지원	교구본사 신도회 준비 및 본사 신도회 강화	승려노후수행관 건립 및 복지법인 설립	선운사 성보박물관	대웅전 부분 보수 및 후불벽화 모사	사찰 특성 살린 수익 모델 창출
교구제적승 지원	불교회관 건립, 지역아동센터 운영	고창군 종합복지관 등 5개 시설 운영	선운 문화제	박물관 수장고 및 보완시스템 마련	사찰 재정의 투명화, 효율화
백파사상 연구소 지원	본말사 네트워크 구성	지역주민 의료봉사	석전 스님 선양 사업	승려노후 수행마을 조성	합리적 총무행정 및 전산시스템
동국대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연대활동	지역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벨트 조성	해외동포 템플스테이	말사 불사 및 각종 행정 지원

아름다운 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팔각접등

만월등

종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LED인등·LED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윤장대 인등

용화사 목련관 위패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경사

연등승강 장치인 천상열차는 찬덕불교가 신기술을 개발하여 기술특허(연등승강 장치 10-0774542호)를 획득한 장치입니다. 이 기술을 모르는 일부 업체에서는 연등승강장치에 대한 모방 및 비방을 하고 다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덕불교는 모방 및 비방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